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43d570d83400c3898c8d13d635f72966a320c2907c46ca06fb700f91a08fca54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10년래 최대폭 상승. ECB 자산매입 축소 요구 증폭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6개월래 최저
 - 미국 6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년동월비 19.1% 상승률로 사상 최고치
 - 중국 8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모두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소비 및 제조업 부문 경제지표 부진 등이 영향

주가 하락[-0.1%], 달러화 보합[+0.01%],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차익매물 증가와 소비심리 둔화 우려 등이 반영
유로 Stoxx 600 지수는 역내 물가급등에 따른 통화정책 변경 우려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8월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세 등으로 보합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0.1%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가관의 월말 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배경
독일은 ECB의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등으로 7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

※ 원/달러 1M NDF환율(1159.3원, -0.6원) 0.1% 하락, 한국 CDS 상승

		8/31일	8/30일	전일대비			8/31일	8/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22.7	4,528.8	-0.13%	국채 금리 10y	미국	1.31%	1.28%	3bp
	유럽	470.88	472.68	-0.38%		독일	-0.38%	-0.44%	6bp
	중국	3,543.9	3,528.2	0.45%	CDS 5y	한국	18bp	17bp	1bp
	일본	28,090	27,789	1.08%		중국	32bp	33bp	-1bp
	한국	3,199.3	3,144.2	1.75%	위험 지표	EMBI+	-	354	-
환율	달러지수	92.66	92.65	0.01%		VIX	16.48	16.19	1.79%
	유로화	1.1809	1.1797	0.10%		WTI유	68.50	69.21	-1.03%
	엔화	110.02	109.92	-0.09%	원자재	구리	435.1	436.1	-0.24%
	위안화	6.4607	6.4667	0.09%		금	1,813.6	1,810.3	0.18%
	원화	1,159.5	1,167.0	0.65%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10년래 최대폭 상승. ECB 자산매입 축소 요구 증폭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0% 상승하여 예상치(2.7%) 상회. 근원 소비자물가도 1.6% 올라 2012년 이후 최고치. 이번 결과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제활동 재개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작년 독일의 부가세 일시 인하, 공급 병목 등에 기인
- 전문가들은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들의 영향이 약화되어 내년부터 물가상승 압력의 완화를 예상. ING의 Bert Colijn은 구조적 고물가의 증거가 부족하기에 단기간 내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은 없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물가 지속 가능성에 따른 ECB의 자산매입 축소를 주장. Berenberg의 Salomon Fiedler는 ECB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산매입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6개월래 최저

- 해당 지수는 113.8로 예상치(124.0) 하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에 소비심리가 둔화. Naroff Economics의 Joel Naroff는 이번 결과가 향후 소비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이며,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

■ 미국 6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년동월비 19.1% 상승률로 사상 최고치

- 같은 달 20대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월(17.1%) 및 예상치(18.5%)를 모두 상회. S&P Dow Jones의 Craig Lazzara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전망 개선으로 ECB 위기 대응을 종료할 필요

- 노트 총재는 ECB 부양책의 속도를 줄여야 하며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도 예정대로 3월에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PEPP의 목적은 인플레이션 전망의 회복인데, 해당 목적은 거의 달성되었다고 언급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도 PEPP의 축소가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 한편 공급 병목 등이 경기회복의 경로를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

■ 중국 8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모두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

- 같은 달 제조업 PMI는 50.1로 전월(50.4) 및 예상치(50.2)를 하회했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 19 재확산, 수출 둔화 등에 기인. 노무라 증권은 하반기 경기둔화 전망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고 평가
- 서비스 PMI도 47.5를 기록하여 경기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하면서 수축 국면에 진입. Capital Economics의 Julian Evans-Pritchard는 서비스 부문의 저하가 국가 경제활동 전반의 둔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

■ OPEC+, 2022년 원유 시장은 공급우위로 전환될 가능성

-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는 일일 90만배럴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나 내년부터는 일일 250만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한편 9/1(水) 예정된 장관급 회의에서 향후 감산 계획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인도 2/4분기 성장률, 20.1%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 중앙통계국, 성장률은 3분기 연속 증가세. 이번 결과는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의 호조에 기인. 자산운용사 IDFC, 향후 경제성장은 백신접종에 따른 코로나 19 영향 축소 여부에 좌우될 전망

■ UN, 라틴 아메리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 이번 전망치는 기존(5.2%)에 비해 0.7%p 높은 수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역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3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지수(전월비): 1.6%, 5월(1.8%), 예상치(2.1%)
- 미국 8월 시카고 PMI : 66.8, 7월(73.4), 예상치(68)

■ 주요 경제 이벤트(9/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ADP 민간고용, 미국 ISM 제조업 PMI, 7월 건설지출
- 유로존 8월 마킷 제조업 PMI, 7월 실업률, 독일 7월 소매매출
-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호주 2/4분기 성장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고용불안, 보편적 기본소득 외에 제도적 구축 등의 해법이 중요** - Financial Times
(In a precarious labour market, universal basic income isn't the only solution)
 - 최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불안이 가시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 부각. 이는 기술진보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안이 커질 경우, 고용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 하지만 과거 영국 사례에서는 근로가구 세액공제 등 빈곤 구제 정책이 왜곡되어, 비상용직 노동자 양산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유발했다는 반론이 존재. 이에 일자리 안정 문제는 기본소득 외에도 법과 제도 등의 보완을 더 논의할 필요
- **파월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분리, 시장안정에 기여했으나 향후 인플레이션이 관건** - 블룸버그
(Powell Dodging a Tantrum May Have Been the Easy Part)
 - 잭스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연내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을 금리 인상과 분리 제시한 점. 이러한 파월 의장의 접근법은 2013년 테이퍼 탠트럼의 충격을 피하고, 금리인상까지 데이터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안정에 기여
 - 최근 인플레 지표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따른 경제적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회복세가 임금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지 여부
 - 충분한 임금상승이 수반되지 않은 채 지표상 인플레이션에 기반해 선불리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지난 10년간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되어온 서방 선진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소지
- **중국 정부, 성장세 둔화를 위한 경기대책이 필요한 시점** - WSJ
(China's July Jitters Become a Summer Slump)
- **인구 고령화와 불평등, 저금리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 요인** - Financial Times
(Demographics mean the fall in interest rates is far from over)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